

辨證法에 대한 Platon과 Aristoteles의 見解差異

趙 要 翰*

1. 辨證法の 端初
2. 辨證法과 辨論術의 차이
3. 辨證法과 爭論術의 차이
4. 綜合과 分割의 관계
5. 辨證法과 推論法の 관계
6. 辨證法과 推論法の 關聯性에 대한 是非

1. 辨證法の 端初

辨證法이라는 명칭은 對話形式으로 자기의 哲學을 기술하였던 Platon 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는 意見이나 慾望은 感覺에 의하지만 確實性을 목표하는 학문적인 지식은 對話法的 探究의 길인 “辨證法的方法”(ἡ διαλεκτικὴ μέθοδος)⁽¹⁾에 의한다고 보았다. 즉 學問은 “理性自體가 對話하는 힘에 의하여”(τῆ τοῦ διαλέγεσθαι δυνάμει) 파악되는 것이라⁽²⁾고 생각하였다. 이 辨證法的方法은 그가 대단한 熱意를 가지고 *Menon* (75 d)을 기록할 당시부터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강조하였던 學問의 최선의 方法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辨證法은 “原理”를 찾는 길이요, 또 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인간은 “形相의 세계”에로 인도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물음과 답에 의한 對話의 方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辨證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問題性이 내포된 하나의 같은 主題에 대하여 다른 意見을 가지고 對立하고 있을지라도 서로 意思疎通의 연결이 되어 있었어야 한다. Platon 에 의하면 對話의 進行에는 두가지 可能性이 있는데, 첫째는 法廷에서 論爭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자기의 입장을 유리하게 진술

* 文理科大學(서울) 哲學科 教授

(1) *Politeia*, 533 c.

(2) *ibid.*, 511b.

하는 길이고, 둘째는 對話에 참여한 양편이 다 서로 對立된 자기들의 의견이 참일 수 없다고 보고 참된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길이다. 전자는 爭論術(εριστική)이라고 칭하는 거짓된 주장을 서슴치 않는 競爭者들의 논의이고, 후자는 진실하게 상대방을 探究의 正道로 이끌어 가는 辨證法(διαλεκτική)의 길이다.⁽³⁾ 따라서 辨證法에서는 獨善的인 태도는 금물이다. 그것은 正과 反으로 맞선 두 의견이 다 거짓도 참도 아니어서 참을 위한 統一이 豫想된다. Platon 自身の 말대로는 그것은 “論爭과 討論을 뽑내는 저 賢者들”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서로 친구로서 對話를 주고 받으면서 좀더 부드럽게, 그리고 좀더 對話法의 약속을 지켜서 답하는”⁽⁴⁾ 자세를 가지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Aristoteles 는 辨證法에 대하여 消極的이었다. 그에 있어서 學問의 形成이란 現存하는 것의 근원을 밝히는 데서 출발하여 “概念을 가지고 原因을 아는 것”을 더듬는 것인데, “가르칠 수 있는가”의 여부가 學問과 學問 아닌 것의 징표라고 그는 생각하였다.⁽⁵⁾ Aristoteles 는 辨證法을 다룬 *Topica* 에서 學問의 기본이 되는 推論은 ① 通念에서 출발하여 推論하는 辨證法的 推論(συλλογισμός διαλεκτικός)과 ② 설정된 前提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이끌어가는 論證的 推論(συλλογισμός αποδεικτικός)으로 구분하였다.⁽⁶⁾ 이때 辨證法的 推論은 蓋然的인 것이어서 必然성을 지닌 論證的 推論에 비하여 학문의 방법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⁷⁾

근대에 이르러 辨證法을 “모든 참된 學問 認識의 녀”이라고 보았던 Hegel 은 Platon 에게서 辨證法의 영향을 짙게 받았다. 그는 “Platon 이 보다 엄밀한 학문적 對話에 있어 辨證法을 사용하여 모든 고정된 悟性規定의 有限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Parmenides* 篇에 있어서 그는 —에서 多를 도출하면서 多를 —이라고 自己規定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Platon 은 이와같이 위대한 方式으로 辨證法을 다루었다”⁽⁸⁾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한편 그는 Aristoteles 의 論證的 推理에 대하여는 혹평하였다. Hegel 은 그의 「精神哲學」에서 Aristoteles 의 업적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推論의 格은 “공허한 形式主義에 지나지 않고” 여러 命題가 가져야 하는 規定, 즉 全稱인가 否定인가 하는 規定은 “기계적인 研究”라고 가볍게 넘겨버렸다. 더 나아가 “만일 사람들이 이런 研究나 悟性推理 一般의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Aristoteles 를 끄집어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부적당한 사람을 인용하는 것이다”라고 토로하였다.⁽⁹⁾ Hegel 은 “辨證法과 論證法이 따로 떨어져 버린 후 사실상 哲學的 論

(3) *Theaitetos*, 167 e~168 a.

(4) *Menon*, 75 d.

(5) *Metaphysica* A₁, 981b 6~7, H.-G. Gadamer, *Platos dialektische Ethik*, 1931, 1968² (Felix Meiner) S. 13~34참조.

(6) *Topica*, 100a 25~100b 18.

(7) *Analytica Posteriora* 74 b 5.

(8) *Enzy. d. phil. Wiss.*, § 81.

(9) *aaO.* § 187.

證의 개념이 망각되어 버렸다”¹⁰⁾ 고 기술하였는데, Gadamer가 주장하는 대로 Hegel은 그의 哲學的 論證의 개념을 Aristoteles의 數學的 論證方式으로 이해하지 않고, Elea學派와 Platon의 辨證法에서 취하였던 것이 사실이다.¹¹⁾

Diogenes Laertius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¹²⁾ “Aristoteles는 그의 詭辨論者 중에서 Empedokles가 처음으로 辨證法을 발견하고, Zenon이 辨證法을 발견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傳聞에 지나지 않는다. Aristoteles自身은 그의 『形而上學』에서 Sokrates당시에 있어서는 “아직 辨證法的 기술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事物의 本質을 떠나서 대상을 탐구하고, 상반되는 것이 同一한 學問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생각할 수 없었다”¹³⁾ 고 말하였고, Platon이전의 사람들은 “辨證法에 종사하지 않았다”¹⁴⁾ 고 밝히 말하였다. 이렇게 辨證法의 시초에 대한 Aristoteles 자신의 기록과 Diogenes Laertius의 傳聞에 의한 기록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詭辯論駁論』에서 “辨證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미 옛날부터의 論述이 수없이 있었으나, 推論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서 우리는 우리 이전에 말할만한 것을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다”¹⁵⁾ 는 기록을 상기한다면, Zenon 이후 많은 辨證法이 있었지만 矛盾論理에 의한 推論인 辨證法이 Platon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이 Aristoteles의 眞意인 것 같다.

우리는 辨證法의 형성과정에 있어 Hegel이 그의 『哲學史 講義』¹⁶⁾에서 “主觀的 辨證法”이라고 말한 Zenon의 변증법과 “客觀的 辨證法”이라고 말한 Herakleitos의 그것을 더듬어 보겠다. Zenon은 “운동하는 것이란 있는 場所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없는 場所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¹⁷⁾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운동하는 것은 이 場所에 있고, 동시에 없다”는 思惟의 자기 운동의 事態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有와 無와의 統一로서의 生成의 範疇이 움직이고 있다.

Zenon의 辨證法과 Platon의 그것이 관련되어 있는 증거로는 Platon이 *Parmenides*篇에서 Zenon이 제시하는 例證을 推理해 나가는 “訓練의 方法”(ὁ τρόπος τῆς γυμνασίας)을 배울 것을 늙은 Parmenides가 젊은 Sokrates에게 권유하는 것으로도 짐작이 간다. 이 방법이란 물음과 답의 방식에 의하여 “多와 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吟味하는 것”을 말한다.¹⁸⁾ Zenon은 多와 運動의 주장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주장에서 相反된 두개의 歸結을 도출하여

(10) *Phän. d. Geistes*, S 53.

(11) H.-G. Gadamer, *Hegels Dialektik*, 1971(J.C.B. Mohr. Tübingen), S. 8 (Hegel u. die antike Dialektik.).

(12) *Diogenes*, VIII 57, IX 25 참조.

(13) *Met.*, M4, 1078 b 25~27.

(14) *ibid.*, A6, 987 b 32.

(15) *De Sophisticis Elenchis*, 184 b 2~3.

(16) *Vorl. ü. d. Geschichte der Philosophie*, (Theorie Werkausgabe) Bd. I. S. 319.

(17) Diels-Kranz, *Frag. d. Vorsokratiker*, 1903, 1961,¹⁷⁾ (Weidmannscher Verlag), 29 Zenon 4.

(18) *Parmenides*, 135d~136a.

상대방의 不合理性을 지적함으로써 이것을 論駁하였다. Zenon의 업적은 論駁術(ἐλεγχος)이었다. 어떠한 Parmenides와 Zenon이 남겨 놓은 성과는 물음과 답을 통하여 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맞붙게하여 이때까지 前面에 나타나지 않았던 非存在(μη εἶναι)가 存在(εἶναι)와 관계되어 보다 높은 存在의 契機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一者를 긍정하고 多者를 부정하였던 Parmenides에 대하여 多者를 통하여 一者를 긍정했던 Herakleitos는 “어두운 사람”(σκοτεινός)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의 哲學이 “하나의 심오하고 思辯的인 사상”임을 표현하는 말이고, Hegel은 “그에게서 우리가 祖國을 발견한다. Herakleitos의 命題로서 나의 論理學에 취입되지 않은 것이 없다”⁽¹⁹⁾고까지 말하였다. 그는 Ionia의 合理主義와 Pythagoras의 神秘主義를 통합하여 우리에게 辨證法의 原始的 형태를 보여 주었다. 그의 斷片들, 즉 “싸움이 萬物의 아버지이다,” “善과 惡은 같다,”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하나이고 같다”⁽²⁰⁾ 등에서 우리는 Hegel의 말과 같이 Herakleitos에게서 “存在에서 生成에 移行하는 위대한 사상을 볼 수 있고, 아직 抽象的이지만 동시에 역시 최초의 統一을 볼 수 있다”.⁽²¹⁾ 그는 一과 多, 낮과 밤, 삶과 죽음, 싸움과 평화, 飽滿과 饑餓와 같은 여러 대립된 範疇를 제시하면서 生成과 運動의 세계관을 담았다. 그는 이 生成과 運動을 불(πῦρ)이라는 말로 상징하였고, 萬物에서 一이 산출되고 一에서 萬物이 산출되는 轉化와 變化를 보았다. Platon이 *Symposion* (187a)에서 Herakleitos의 말을 引用, “하나의 것이 마치 활과 거문고의 諧調와도 같이 속으로 分裂抗爭하면서도 스스로는 서로 一致統合한다”는 것을 육체와 정신의 생생한 과정으로 제시한 점으로 보아 Herakleitos의 변증법적 사고가 Platon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능히 추측할 수 있다.

Platon은 Sokrates의 절대적인 영향을 입은 사람이다. Platon의 初期作品들은 물음과 답을 교환하여 묻는 자가 論駁術을 채택하여 답하는 자로 하여금 自己矛盾에 빠지게 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Apologia* (27b)에서 Sokrates 자신이 “내가 보통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 하더라도 떠들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가 *Menon* (75c)에서 채택한 물음과 답에 의한 論駁術이란 詭辨論者들이 채용하고 있는 ① “辨論術에서 생기는 說得이란 (τὴν πειθῶ τὴν ἀπὸ τῆς ῥητορικῆς)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이며 또 무엇을 위한 것인가”⁽²²⁾를 그들 스스로를 통하여 이야기시켜 보고, ② “묻는 자가 論爭과 討論을 일삼는 저 賢者들 중의 어떤 사람(τῶν σοφῶν τις εἶη καὶ ἐριστικῶν τε καὶ ἀγωνιστικῶν)”⁽²³⁾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했을 것이다. Platon뿐만 아니라, Xenophon도 그의 *Memorabilia* (III. viii 1; IV. iv.

(19) *Vorl. ü. d. Gesch. d. Phil.* Bd 1. S. 342.

(20) Diels-Krang, *aaO*, 22 Herakleitos 58, 58, 60.

(21) *Vorl. ü. d. Gesch. d. Phil.* Bd. I. S. 324~5.

(22) *Gorgias*, 453 b~c.

(23) *Menon*, 75 c.

9; IV. v. 12~vi 1; IV. vi 13~15; IV. viii. 11)에서 Sokrates 가 문답에 의한 論駁術을 취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Sokrates는 *δισσοὶ λόγοι*(兩立論)를 내세우는 詭辨論者들과 맞서 眞理를 戰取하여야 했다. 이 兩立論이란 처음에 어떤 논의의 찬성(pro) 편에 섰던 사람이 다음 순간에 반대(contra) 편에 서는 것으로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것인데, Platon이 *Protagoras* 篇(327c~328c)에서 “德은 가르칠 수 없다”는 주장에 맞서 스스로 德의 教師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다가 다시 뒤집는 저 兩立論의 일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Aristoteles 가 *De Sophisticis Elenchis* (183 b)에서 보고하는 대로 Sokrates는 “論敵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상대방에게서 끄집어내는 능력” 뿐 만 아니라, “論敵의 공격에서 우리의 주장을 수호하는 방법”으로 그가 언제나 많이 묻고 거의 답을 내리지 않는 채 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告白케 하는 일을 해왔다. 辨論家들은 질문을 받으면 곧 “一瀉千里의 긴 口辨을 늘어놓지만” Sokrates는 “問答에 의해 對話하는 방식과 말을 주고 받는 능력(*διαλέγεσθαι οἷός τ' εἶναι καὶ ἐπίσταθαι λόγον τε δοῦναι*)을 가지고” 있었다. ⁽²⁴⁾

Sokrates의 물음과 답에 의한 對話法의 長點은 Robinson 이 *Phaidros* 篇을 인용하면서 적절하게 지적한 대로 ① 상대방이 칭찬하건 비난하건 간에 “어떤 確實성과 明瞭性”을 주기 때문이다. (277 d) 씌여진 文學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② 著作은 어떤 質問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이고 같은 것을 되풀이할 뿐이다”. (275d) ③ 書籍은 서로 의견교환이 없으면 멀리할만한 것,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배우고서도 마치 중대한 것이나 배운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²⁵⁾ 따라서 “아름다운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은 對話術이고, 마음 속에 각각 싹터 영원히 살게 하고 그 所有者로 하여금 행복하게 한다.” (276e)

Sokrates가 그의 對話法에서 채택한 방법은 助産術(*μαιευτική*)이다. 진리의 인식에 도달하는 길을 향해 더듬어 나아가는 對話術은 助産員이 임신부를 도와 胎兒를 分娩케 하는 助産術과 類比的으로 표현될 수 있다. *Theaitetos*의 처음 부분(148 a~151 d)과 마지막 부분(210 a~d)에 의하면 Sokrates는 助産員이었던 그의 어머니 Phainarete로부터 傳承적으로 “나와 어머니는 하느님에게서 助産術을 부여 받았으니” (210 d) 자기는 精神的 助産員으로 자각하여 無知의 知者라는 助産員의 입장에 서서 知的 無知者라는 임신부들을 돕는다고 생각하였다. Sokrates는 ① 知的 無知者일지라도 “그 속이 空虛한 것이 아니고, 妊娠하고 있다” (148e)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眞理가 될만한 것을 妊娠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F.M. Cornford의 註解와 같이 *Menon* 79 e의 想起(*ἀνάμνησις*)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²⁶⁾ ② 助産員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出産을 돕는 데 있다. 投藥하여 고통을 덜게 한다든가 流産시켜 産母를 돕는

(24) *Protagoras* 329 b, 336 c.

(25) R. Robinson, *Plato's Earlier Dialectic*, 1953, (Oxford) PP. 79~80, *Epistulae* 341 e 참조.

(26) F.M. Cornford, *Plato's Theory of Knowledge*, 1935, (Routledge & Kegan Paul) PP. 27~8.

데 있다. (149c~d) 실로 精神의 敎師는 기성의 지식을 수여하는 데 있지 않고, 宗教的 敎理를 습득시키는 데 있지 않고, 각자 갖고 있는 眞理를 產出시키는 것을 도울 따름이다. 이 의미에 있어서 Pestalozzi가 Sokratisieren(Sokrates적 방법으로 교육하는 일)과 Katechisieren(敎理問答的 방법으로 교육하는 일)을 구별한 것은 그 까닭이다.⁽²⁷⁾ ③ “助産員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업무는 眞僞를 判別하는 일이다.”(150 b) 즉 產前에 妊娠與否를 식별하고, 產後에 眞兒인가 奇兒인가를 식별하는 어려움을 말아야 한다. 실로 철학자라는 精神的 助産員은 知의 吟味를 통하여 (διὰ τὴν ἐξέτασιν) 眞理를 키워나아가야 한다(210 c)는 것이다.

Platon은 Sokrates의 方法에 따라 옳은 哲學을 (τὴν ὀρθὴν φιλοσοφίαν) 배워, “나라의 일이진 사사로운 일이진 모두 옳은 것은 이 哲學에서 판별할 수 있었다”고⁽²⁸⁾ 한다. 그가 Sokrates의 方法에 卽하여 어떻게 辨證法을 哲學의 方法으로 발전시켰는가를 아래에 더듬기로 하자.

2. 辨證法과 辨論術의 차이

Platon이 “옳은 哲學”의 方法으로 택한 辨證法이란 *Politeia* 篇(532b~533c)에서 기록된 대로 直接的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부터 間接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데로 “인도되는” 進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분류는 여러 著作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Phaidon* (79 a)에서는 肉體와 영혼과의 취급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올바른 方法을 정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의 方法으로 (κατὰ τοῦτον τὸν τρόπον τῆς μεθόδου)…… 혼란된 說明을 해놓으면,” (97 b)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되어서”(101 e) 참된 것을 발견 못한다고 한다. 또 *Phaidros*(263a~b)에서는 보이는 鐵과 銀 같은 사물과 보이지 않는 正義와 善과 같은 비 물체적인 것을 구분하고, 후자에 관련된 “辨論術을 배우려는 사람은 우선 그것을 方法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δεῖ ταῦτα ὁδῶ διηροῦσθαι) (263 b)는 점을 강조하고, “이야기에 앞서 定義를 내릴 것”(263 d)과 “어떤 辨論的 必然性(ἀνάγκη λογογραφική)에 의하여”(264 b)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 문장 중에 μέθοδος(方法)라는 말과 ὁδός(길)라는 말이 나왔다. 이 두 말은 어떤 著述家の 경우에도 물질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 旅行이나 探求라는 뜻에서부터 순수하게 知的인 것으로 轉用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Platon은 μέθοδος라는 말을 초기 作品부터 專門用語로 사용하였다가 뒤이어 ὁδός라는 暗喻的인 용어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두 용어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Robinson이 지적한 대로 “그(Platon)의 논의 중 가장 가치있고 가장 어려운 眞理는 方法에

(27) J. H. Pestalozzi, *Wie Gertrud ihre Kinder lehrt*, 1801, (Sämtliche Werke, hrsg. von Seyffarth. Bd. IX) S. 43.

(28) *Epistulae*, VII. 326 a.

의해서만 도달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진리 획득의 준비를 위하여 우리는 단순한 事物에 관한 方法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⁹⁾ Platon 이 우리에게 보여준 方法實踐의 한 예증은 *Politeia* (368d~e)에서 近視의 사람에게는 작은 글자가 멀리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큰 글자로 써놓아 잘 보이도록 하고, 먼저 큰 것을 읽고 다음에 작은 것을 검토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뚜렷히 보이는 國家의 正義를 먼저 검토하고 다음에 희미한 個人의 正義로 옮겨가는 “探究方法”을 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方法들은 다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수단이란 목적을 위한 것이고, 수단은 목적의 “達成”(δέξοδος)⁽³⁰⁾에 이르면, 이른바 “進行의 停止”가 불가피하게 된다고 한다.⁽³¹⁾ 그러면 Platon 의 哲學의 목적은 무엇인가? 더 설명할 필요없이 그것은 “잘 사는 것”이다.⁽³²⁾

Platon 의 哲學方法인 辨證法은 그 당시 Athenai 를 휩쓸었던 “辨論術”(ρητορική)과 “爭論術”(ἐριστική)과 혼동되기 쉬운 것이었다. 첫째, 辨證法과 辨論術은 어떻게 다른가? *Gorgias* 篇에 의하면 辨論術이란 “주로 言論을 사용하는 技術 중의 하나”(τις τῶν τεχνῶν τῶν τὸ πολὺ λόγῳ χρωμένων)인데, 달리 말하면 그것은 “言論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技術”이라 규정하는 것이다.⁽³³⁾ 言論에 의하여 모든 것을 달성하는 이 技術은 正과 不正, 美와 醜, 善과 惡에 대해서도 健康이나 기타 다른 기술의 대상에 대해서도 “說得을 일으키는 것”(πειθοῦς δημιουργός)이다.⁽³⁴⁾ 그래서 大衆으로 하여금 不正을 正이라 하고, 虛僞를 眞實이라고 하는 “信念”(πίστις)을 갖게 한다. 이것은 化粧術으로써 모습이나 색깔이나 피부 등을 다듬어 아름답지 못한 것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여 “자기 본래의 美”를 무리하게 이그러뜨리게 하는 것과 같아서 迎合(κολακεία)이라고 불리워진다.⁽³⁵⁾ 이 化粧術은 體育術에 비하여 迎合的인 것이다. 法廷이나 그의 여러가지 집회에서 대중에게 正이나 不正에 대하여 說得하고 迎合하는 “政治術의 한 부분의 그림자”(πολιτικῆς μορίου εἶδωλον)⁽³⁶⁾라고 불리워지는 이 辨論術과 司法(裁判)術과의 관계는 化粧術이 體育術에 대한 관계와 같다고 한다.⁽³⁷⁾

Platon은 “도대체 辨論家들은 마치 독재자들이 하는 것과 같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이든 간

(29) Robinson, *op. cit.*, PP. 60~69참조. μέθοδος라는 Platon의 용어는 *Politeia* (435d~533bc. 596a)와 *Nomoi* (638e, 965c)에는 “方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Politikos* (260 e)나 *Phaidros* (270c), *Sophistes* (219a), *Politeia* (510b~c)에서는 “探究”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Phaidros* (296d). 나 *Phaidon* (79e)에서는 “길”이라는 뜻으로 또 *Phaidros* (270d), *Sophistes* (265a, 235c)에서는 “進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30) *Politikos* 277b, 279c.

(31) *Politikos* 532e.

(32) *Kriton* 48 b. οὐ τὸ ζῆν περὶ πλείστον ποιητέον ἀλλὰ τὸ εὖ ζῆν.

(33) *Gorgias* 451a.

(34) *ibid.*, 453 a.

(35) *ibid.*, 463 b.

(36) *ibid.*, 463 d.

(37) *ibid.*, 465 c.

에 死刑시키고, 財産을 몰수하고, 국가에서 追放시키는 것이 아닌가?”고 표현하였다.³⁸⁾ 이 辨論術이 Sophistai의 손에 의하여 “그리스에서 가장 言論의 權威(ἐξουσία τοῦ λέγειν)가 있었던 Athenai에서”³⁹⁾ 弱肉强食과 優勝劣敗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은 통탄스러운 일이었다. 이들은 “국가가 내부에서 굶아 썩어가는 것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節制나 正義의 德을 무시한다”⁴⁰⁾고 통탄했던 Sokrates가 “현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이 홀로 참된 政治의 과업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⁴¹⁾고 까지 吐露하였다.

Platon은 “Sophistai와 辨論家は 매우 가까운 관계가 있어 거의 비슷하다”⁴²⁾고 말하고 있다. 국가의 앞장에 서서 지도하면서도 사람들은 德으로 향하게 하는 教育을 하지 않는 이들을 反駁하고 善導하는 무슨 方法이 있을까? Platon은 그 실마리를 “說得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知識 없이 信念만을 가져오는 說得이고, 다른 하나는 知識에 의한 (δ' ἐπιστήμην) 說得이 있다”⁴³⁾라는 자기 말에서 찾고 있다. 이 “知識에 의한” 길은 辨證法의 端初이다.

G. Ryle이 傳하는 대로⁴⁴⁾ Protagoras의 時代로부터 Aristoteles가 教授하기 시작한 초기까지의 사이에 여러 종류의 辨論術들이 그리스에 있었다. 知的이고 野心的인 젊은이들이 公的 生活에 나아가 행세할 수 있게끔 어떻게 雄辨과 政治的 演說들을 구성할 것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능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 당시 그리스에는 數學者, 天文學者, 醫師와 같은 일부 專門人들을 제외하고는 Platon이 창설한 Akademeia가 시작되기까지는 어떤 다른 高等教育의 기관이 없었다. 그 때 Sophistai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들의 상당수가 “辨論術의 教師”로서 등장하였었다. Phaidros(266e)에서 Platon이 지적한 대로 “辨論家들은 그들에게 마치 임금에게 貢物을 바치듯이 선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그것(辨論術)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辨論術은 辨證法과는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辨證法과 辨論術의 차이는 어느 점에 있는가? Aristoteles는 그의 *Ars Rhetorica*(I (1) 11, 12, 14; (2) 7, 8, 9)에서 辨論術과 辨證法은 그 實行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매우 접근되어 있고, Aristoteles 이전의 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소위 辨證法은 그 實行에 있어 辨論術의 보조적인 구실을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De Sophisticis Elenchis*(183 b)에서 그는 辨論術을 발견한 사람들로서 Tisias, Thrasymachos, Theodoros의 이름을 들고 있는데, 이들의 공적은 큰 것이 있다고 말한다. Gorgias와 같이 보수를 받고 교수하였던 So-

(38) *ibid.*, 466c~d.

(39) *ibid.*, 461e.

(40) *ibid.*, 518e~519a.

(41) *ibid.*, 521d.

(42) *ibid.*, 520 a.

(43) *ibid.*, 454e.

(44) G. Ryle, *Dialectic in the Academy*, ed. by R. Bambrugh, *New Essays on Plato and Aristotle*, 1963 (Routledge & Kegan Paul) P. 39.

phistai 는 辨論術(修辭學)的 논의나, 혹은 問答形式의 爭論術을 暗記할 과제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학습자에게 준 가르침은 “신속한 것이나 非體系的인 것이었다”⁽⁴⁵⁾고 Aristoteles 는 지적하고 있다. 그가 辨證法과 辨論術을 거의 같은 것으로 취급한 이유는 ① 우선 종래의 辨證法이 辨論術의 보조 구실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② 그가 *Analytica Posteriora* (77a 30~34)에서 지적하는 대로 “모든 것은 이것을 肯定하든가 否定하든가의 어느 하나인 排中律”이나, “같은 것을 같은 것에서 제거하면 남은 것이 같다”는 두 原理中의 어느 것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 科學과 연결되겠지만, 辨證法은 그렇지 못하다.

Aristoteles 에 의하면 辨證法은 “推論(συλλογισμός)에 의해서든가, 歸納(ἐπαγωγή)에 의해서 說得시키는 것”이고, 한편 辨論術도 “例證論法(παράδειγμα)에 의하든가, 修辭推論(ἐνθύμημα)에 의하는 것인데, 전자는 歸納이고 후자는 바로 推論이다.”⁽⁴⁷⁾ 이렇게 보면 辨證法과 辨論術은 같은 종류의 것이다. 그런데 ἐνθύμημα라고 불리우는 修辭推論은 “있을 수 있는 것,” 즉 “嫉妬하는 사람들은 미워한다”고 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은 “必然적이고 일반적으로 納得되는 論證의 前提인” 徵標(σημεῖον)가 결여된 것을 말한다.⁽⁴⁸⁾ 그러나 같은 推論일지라도 “推論의 術知를 사용하여 吟味檢證을 행하는 사람이 辨證論者”⁽⁴⁹⁾이기 때문에 辨證法은 推論에 의한 論證이지만 辨論術은 불완전한 推論에 의한 說得이라는 점이 그 차이라 하겠다.

도대체 辨論術에 의하여 무엇이 교수되었던가? *Phaidros* 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Byzantin 의 修辭家들은 ① 演說의 서두를 시작하는 방법, ② 陳述과 例證, ③ 證明, ④ 蓋然性, ⑤ 確證과 再確證을 가르쳤고, Gorgias의 제자 Polos는 ① 反復法, ② 格言法, ③ 比喩法, ④ 正言法(Lykimnos의 音調가 加味되었음)을 가르쳤고, 그 밖에도 Thrasymachos 는 老人과 貧苦에 대한 悲嘆表現法을 가르쳤다.⁽⁵⁰⁾ 그러나 이 辨論術은 “말 재주로 작은 것을 크게, 큰 것을 작게, 새 것을 낡은 것으로,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Platon 도 Aristoteles 도 함께 그것이 詭辨術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아 경계하였다. Aristoteles 는 辨論術은 “主題 밖의 것을 辨護法 속으로(πρὸς τὸ δικολογεῖν) 가져가는 것”인데 그것은 적어도 “學問的 用語에 의한 것”(ὁ κατὰ τὴν ἐπιστήμην λόγος)이 못된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⁵¹⁾

(45) *Soph. Elen.* 184 a 2~3.

(46) *Anal. Prio.* 68 b 14.

(47) *Anal. Post.* 71 a10~11.

(48) *Anal. Prio.* 70 a 3~8.

(49) *Soph. Elen.* 172 a 38.

(50) *Phaidros* 266 d~267 c.

(51) *Ars Rhetorica*, I, 1355^a.

3. 辨證法과 爭論術의 차이

G. Ryle 은 그의 研究⁽⁵²⁾에서 Athenai 에 있어서의 論爭놀이(the eristic game)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현대인이 장기놀이를 하는 모양으로 그리이스인들이 知的 勝負(duel)를 위해 이 論爭놀이에 참가하였다. 우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묻는 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답하는 자가 되어 여러 종류의 물음, 즉 事實的 물음, 算術的 물음, 技術的 물음을 제기한다. 가령 “正義는 强者의 利益이다,” “知識은 知覺에 의한 것이다” 등의 定立命題에 대하여 묻는 자가 그 命題의 不一致性을 “論駁”해가는 일인데, 대답하는 사람이 이 命題를 해가 저물 때까지 방위하는 데 성공하면 답하는 자의 승리로 돌아간다. 그러나 답하는 자가 처음 命題와 모순된 말을 한다든가 침묵이나 후퇴, 또는 惡談이나 恨嘆을 일삼는다면 묻는 자가 승리한다. 이때 한 물음 속에 두개나 그 이상의 뜻이 있어 알쏭달쏭하거나, 또는 暗喩的인 물음으로써 반대하는 것이 묻는 자에게 허용되었다. 이 論爭놀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다.⁽⁵³⁾ 때로는 승리가 어느 편에 돌아갔는가를 判斷하는 일이 聽衆들에게 맡겨지기도 했고, 이 勝負는 가령 日沒까지라든가 하는 식으로 정한 時間이 있었던 것 같다.⁽⁵⁴⁾

이같은 論駁勝負를 그리이스 세계에서 爭論的 論議(ἐριστικός λόγος)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Platon 과 Aristoteles 에 있어서 非難의 의미로 취하고 있다. 그들이 非難하는 이유는 論爭놀이가 승부를 위해서 모든 策略을 내세우는 Sophistai 에 의하여 이것이 商業化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이다. *Theaitetos*(167e~168a)의 표현대로 그들이 爭論할 때 언제나 희롱하고 詭策을 쓰고 “德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이……言論 속에서 시종 不正한 것만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辨證할 때 언제나 眞實하고 옳은 길을 밟아 상대방이 실수할 때 正道에 인도하는 것과 對照되었다. Platon 은 그의 *Euthydemos*에서 論爭에 餘念이 없는 Sophistai 를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Aristoteles 는 爭論的 논의가 “外觀上的 推論”(φαινόμενος συλλογισμός)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欺瞞的이고 正當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競技試合에 있어서의 不公平은 특정한 形式으로 不公平한 競技를 하는 것 같이 爭論에 있어서도 不公平한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 爭論的 논의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릇된 圖形을 그리는 사람에 대한 幾何學者의 관계와 같다.”⁽⁵⁵⁾고 표현함으로써 爭論術에 대한 辨證法의 優位를 말하고 있다.

왜 그리이스인들이 爭論的 討議會에 참석하였던가? G. Ryle 이 정리한 Aristoteles 가 제시

(52) G. Ryle, *Plato's Progress*, 1966 (CUP) P. 193.

(53) *Sophistes*, 230 c.

(54) *Topica*, 161 a 10; 183 a 25.

(55) *Soph. Elen.* 171 b 22~24, 35~36.

한 몇가지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여기에는 教育的 또는 個人指導的인 동기가 있었다. 배우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定立命題를 방위하기 위해서나, 혹은 다른 사람의 命題에 대한 批評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論議를 실행하여야 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들을 爭論에 참가시키거나, 또는 배우는 자들을 서로 묶어 主題를 주어 그들의 논의를 비평케 했다. 이것이 訓練을 위해 (*πρὸς γυμνασίαν*) 마련된 辨證法이다. ⁽⁵⁶⁾

(2) 때로 사람들은 知的 自己滿足으로 爭論에 참가하였다. 그들의 精神과 機智가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의 精神淨化가 필요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껴졌던 議論이 명백하게 論理的 矛盾이라고 인정되었을 때, 그들은 더욱 조심하게 되고 知的으로 겸손하게 된다. 이것이 Aristoteles 가 檢證的 議論 (*πειραστικοὶ λόγοι*) ⁽⁵⁷⁾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위의 교육적, 개인지도적 辨證法의 일부이다.

(3) 이 訓練은 사람을 열중시키는 競技이다. 그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흥분시키고, 경쟁적인 놀이였다. 오늘날의 장기놀이나 펜싱경기와 같이 그것은 이기는 재미이고, 상대방의 戰法을 물리치기 위한 재미이었다. 이것이 Aristoteles 가 論駁 (*ἀγωνιστική*)이라고 부르는 勝負目的의 훈련이다. Aristoteles 는 “訓練中에는 爭論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⁵⁸⁾ Aristoteles 자신이 아직 늙기 전에 이 論爭遊戲의 教師로서 젊은이들을 지도한 바 있다.

Platon 의 *Politeia* VII (537~9)에서 보면 이 論爭놀이가 그 당시 불건강하게 人氣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것은 醜聞과 危機를 몰고 갔었다. ⁽⁵⁹⁾ 그래서 Sokrates 는 젊은이들이 이 訓練에 참가하지 말도록 하였고, Akademeia 역시 교육정책상 그같은 爭論訓練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Aristoteles 는 *De Sophisticis Elenchis* 마지막 부분에서 (184 a 10) 辨證法의 *τέχνη*(기술)를 習得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辨證法의 要覽인 *Topica* 를 기록하여 그것을 젊은이에게 교수하였던 것이다.

(4) 어떤 Sophistai 는 필요에 따라 公的인 試合을 열었다. 聽衆들 중에서 도전자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서로 서로 도전자가 되어 논쟁하게 되었다. 그들의 目的은 어떻게 해서든지 勝利하는 것인데, 그래야 無敵이라는 평을 받아 그들이 돈을 벌게 되기 때문이다. 돈을 번다는 것은 그 같은 勝負에서의 指導로 말미암아 물려드는 젊은이들에게서 받는 수업료를 말한다. 그리고 아마도 선수권 획득의 경기를 참관하기 위하여 찾아온 청중들에게서 入場料를 징수하여 수입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施賞을 위한 討論會나 論爭을 위한 論爭을 Platon 이나 Aristoteles 가 비난하였던 것이다.

(56) *Topica*, 101 a 27.

(57) *Soph. Elen.*, 165 b.

(58) *Topica*, 164 b 8~14, 163 a 30 “이런 論議의 훈련과 실전 (*γυμνασία καὶ μελέτη*)을 위하여” 라고 기록하였다.

(59) *Apologia*, 23c; Isokrates, *Helen* 1 참조.

(5) 마지막으로 진지한 哲學者들이 철학적 論爭點 자체에 흥미를 느껴서 서로 이 勝負에 중사하였다는 사실이다. Euthydemos 나 Dionysodoros 가 “모든 意味있는 陳述은 참이 아닌가?”라는 물음을 하나의 단순한 함정으로 사용했다 해도 Platon 이나 Aristoteles 같은 철학자가 같은 물음을 물어 나아가 意味와 眞理 사이의 관계를 똑바로 밝히기 위해서 檢證해 보려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哲學的 목적으로 시행하는 辨證法的 훈련이다.

이상은 G. Ryle 이 정리한 爭論에 참여한 이유들이다.⁽⁶⁰⁾ Platon 이 사망하기 전, 약 6年前에 (354/3 BC) Isokrates 가 *Antidosis* (258~69)에서 Akademeia 의 教科目으로 天文學과 幾何學은 물론 爭論術이 첨가되었다고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Ryle 의 證言대로 Platon 이 *Parmenides* 篇(2部)에서 늙은 Parmenides 로 하여금 젊은 Sokrates 에게 哲學者가 되려고 하면 知的 訓練으로 辨證法을 배우라고 권유시킨 점이라든가, Aristoteles 가 그의 초기 작품이라고 여겨지는 *Topica* 에서 辨證法을 “훈련의 목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Akademeia 에서 350年代에 辨證法을 가르친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어쨌든 Aristoteles 는 辨證法으로 유효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方法을 여러가지 “共通의 論點”에서 논의한 *Topica* 에서 “哲學者와 辨證論者의 탐구는 같은 방법이다”⁽⁶¹⁾라고 밝히기도 하고, 對話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상이한 意見에서 출발하여 우리 생각에 잘못된다고 여겨지는 意見들은 다 變化시키도록” 노력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⁶²⁾ 그러나 Platon 의 경우는 물론이었겠지만 Aristoteles 도 “아무나 상대로 이 訓練을 할 수 없다”⁽⁶³⁾는 엄격한 자세를 취하였다. 종래의 Sophistai 가 취한 어떤 속임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시의 새로운 學問的 분위기이었다.

4. 綜合과 分割의 關係

Platon 과 Aristoteles 는 Sophistes 의 論法(*ὁ σοφιστικὸς τρόπος*)을 멸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Aristoteles 는 Platon 보다 더 그것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찾고 있다. 물론 Platon 은 그 爭論方式을 “어린아이 같은 짓”(*ὡστε παιδῶν*)이라고 하였으나,⁽⁶⁴⁾ Aristoteles 는 定義의 예증에서 辨證論者와 도적놈과를 대치시켜 볼 정도로 酷評한 것이 사실이다.⁽⁶⁵⁾ 그러나 Aristoteles 는 그들의 방식을 克服하는 일에 있어서 Platon 보다 좀 더 적극적이었다. 즉 Sophistes 의 방식은 “三角形의 內角의 총화가 二直角이라”는 지식 없이 날개의 三角形만을 아는 방식으로 그것은 “三

(60) ed. by. Bambrough, *op. cit.*, PP. 41~43.

(61) *Topica*, 155 b 8.

(62) *ibid.* 101 a 32~33.

(63) *ibid.* 164 b 8, 171 b 21.

(64) *Theaitetos*, 177 b.

(65) *Topica*, 149 b 25~30.

角形의 보편적 특성”(καθόλου τρίγωνον)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⁶⁶⁾

Platon 은 Sophistes 적 論法에서 導出된 辨證法이 최고의 方法이라고 보았다. 즉 “辨證法은 마치 선반처럼 모든 學問에 대하여 우리들 위에 놓여 있고, 그 이상의 다른 學科를 놓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學問은 여기에 이르러 完結된다.”⁽⁶⁷⁾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Aristoteles 는 Sophistes 的 論法은 “辨證法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異質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Sophistes 的 論法은 제1의 命題에서 제2의 命題에로의 移行에 있어서 “外見上의 必然”만으로 이끌어 가지만 辨證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⁶⁸⁾ 辨證法이 Sophistes 的 論法과 다른 점은 辨證法의 “檢證術의 과정” 때문이라고 보았다.⁽⁶⁹⁾

Sophistes 的 論法에 맞서서 또 그것을 이용하여 출발해 나가는 데 있어 Platon 과 Aristoteles 는 거의 비슷한 입장을 취하였으되, Platon 은 Sophistai 의 知識의 거짓된 自慢을 一掃하는 일에 기울었고, Aristoteles 는 그들의 命題를 檢證하는 일에 힘썼다. 즉 Platon 은 육체에 병이 있을 때 그것을 手術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섭취하여도 소용이 없는데, 學問에 종사하는 자도 역시 “學問을 방해하는 여러 意見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알고 있는 것만을 알고 있지 그 이상은 모른다”⁽⁷⁰⁾는 자세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런데 Aristoteles 는 “하나의 命題를 뒤집어 엎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相反된 特性이 相反된 것에는 속하지 않는가 어떤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⁷¹⁾

Platon 의 辨證法 研究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던 J. Stenzel 은 Platon 對話篇들을 發展史的으로 구분하여 倫理的, 實踐的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던 初期와 自然科學的 부문에 관심을 기울였던 後期로 나누었다. 즉 Platon 은 초기에 그리이스의 德(ἀρετή)의 개념에 의하여 善의 Idea 에로의 形相(εἶδος)을 原因(αἰτία)으로 해명하였고, 후기에는 개별적인 事實性을 학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基體의 分割(διαίρεσις)을 꾀하였다. 그래서 Platon 은 *Politeia* 를 기록하기까지는 “ἀρετή-εἶδος 敎說”을 견지하여 현실에서 理想으로 향하는 노력을 보였고, 후기에 이르러 특히 *Parmenides*, *Sophistes*, *Theaitetos*, *Politikos* 등에서 超越의 세계보다는 감각적 個物에 관심을 돌려서 “διαίρεσις 敎說”을 견지하기에 이르렀다.⁽⁷²⁾

Stenzel 의 말과 같이 Platon 에 있어서 *Politeia* 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중요성을 띠고 있다. 제7권의 洞窟의 比喩에 “上界에 올라 갔다가 下界로 내려오는 과정”이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66) *Anal. Post.*, 74a 27~34.

(67) *Politeia*, 534 e~535 a.

(68) *Topica*, 111 b 33~112 a 15.

(69) *Soph. Elen.*, 169 b 25 ἔστι δ' ἡ πειραστικὴ μέρος τῆς διαλεκτικῆς.

(70) *Sophistes*, 230 e~d.

(71) *Topica*, 153 b 10.

(72) J. Stenzel, *Studien zur Entwicklung der platonischen Dialektik von Sokrates zu Aristoteles*, 1931, 1961,² (Darmstadt) S. 1~2

上昇(ἀνάβασις)과 下降(κατάβασις)과의 교차는 그의 前期思想과 後期思想의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73) Platon은 *Politeia*와 같은 시기의 作品이라고 볼 수 있는 *Phaidros*(74) (265 d~e)에서도 “각각의 사물을 하나의 觀念으로 綜合하는 것”과 “여러가지 종류에 따라 分割하는 것,” 즉 綜合(συναγωγή)과 分割(διαίρεσις)의 두 方法을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感性的인 개개의 事物에서 超感性的인 形相에로의 “綜合”과 동시에 最高類로서의 存在와 倅어 생각할 수 없는 “分割”을 말하고 있다.

綜合과 分割의 關係를 학문적으로 가장 간결하게 밝힌 것이 *Sophistes*(253 d)이다. 그는 먼저 “類에 따라 分割하는 것, 그리고 같은 類를 다른 類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類를 같은 類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辨證法의 지식에 속한다”고 前提하였다. 辨證法이 “類에 따라 分割하는 것”(τὸ κατὰ γένη διαίρεσθαι)이되 그 分割은 하나의 조직 속에 統一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分割인 동시에 綜合이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귀결이 계속되어 있다. “하나의 形相(μία ἰδέα)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많은 것(πολλά)을 통하여 도처에 침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리고 서로 많은 形相이 하나의 形相에 의하여 밖에서 包括되고, 그래서 거꾸로 하나의 形相이 一括하여 서로 결합된 形相을 통하여 하나로 연결되고, 그리고 많은 形相들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하였다. 그 내용을 다시 整理하면 ① 하나의 Idea가 遍在한다는 것, ② 서로 다른 많은 것이 하나의 Idea에 의하여 包攝된다는 것, ③ 다시 많은 Idea를 통하여 하나로 聯結된다는 것, ④ 많은 Idea들이 분리된다는 것의 4개의 項目으로 나눌 수 있다. Stenzel의 解釋대로 이때 ①과 ③은 “하나의 形相”에 관계되고, ②와 ④는 “많은 것”에 관계된다. ①은 ③에서 설명되고, ②는 ④에서 설명된다. 그러면서도 ①과 ②는 綜合을 말하고, ③과 ④는 分割을 말한다. (75)

여기서 우리는 Herakleitos의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 그리고 *Politeia*의 “上昇과 下降”의 두 길이 하나이었음을 되생각한다. 上昇과 下降, 綜合과 分割은 辨證法의 불가결한 두 契機를 말한다. 그것은 하나의 方法의 두 側面에 불과하다. 이것은 *Phaidros* (265 e)의 표현대로 “자연 본래의 分節에 따라”(κατ’ ἄρθρα ἧ πεφυκεν) 概念의 體系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Sophistes* (253 d)에 대한 Cornford의 註解에 의하면 (76) 많은 Idea들과 하나의 Idea와의 이 구조는 “綜合과 分割의 方法에 따른 類(genus)와 種(species)의 包攝關係”이기도 하다. 이것은 *Phaidros* (265 d)의 “널리 흩어진 Idea들(species)을 綜合하여 그것을 오로지 하나의 Idea(genus)로 만들려는” 種과 類의 關係이다. 個에서 種으로, 種에서 類로 거슬러 올라가는 概念

(73) J. Raven, *Plato's Thought in the Making*, 1965, (C.U.P.) P. 119 이하 참조.

(74) Schleiermacher나 Volquardsen은 *Phaidros* 篇이 Platon의 초기작품이라고 본다. 그러나 오늘의 文獻學的 연구는 그것이 *Politeia* 이후의 作品이라고 본다. J. Raven, *op. cit.*, pp. 188~199.

(75) Stenzel, *aaO.* S. 62~68.

(76) F.M. Cornford, *op. cit.*, p. 267, pp. 263~272.

의 體系를 말한다. 이 때 分割이란 이 概念의 體系를 밝히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Platon 의 辨證法을 類에 따라 分割하는 類와 種의 關係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Aristoteles 的 形式論理에 적용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Cornford 가 지적하는대로 形式論理란 ① 命題形式, 즉 한 陳述이 분류될 수 있는 類型을 갖추어야 하고, ② 主語, 述語, 名辭 사이의 關係 등 命題形式의 構成을 이루어야 하고, ③ 命題形式 사이의 形式的 推理關係를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Aristoteles 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시된

만일 A가 모든 B에 속하고

그리고 B가 모든 C에 속한다면

따라서 A는 모든 C에 속한다.

는 形式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Platon 의 分割과 綜合의 辨證法은 그 같은 命題의 形式을 사용하지 않았다. Platon 이 『제 7 書翰』⁽⁷⁷⁾ (344 b~c)에서 “全存在의 眞과 僞를 함께 切磋琢磨를 거쳐서 時間을 들여 배워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것, 즉 名辭와 定義와 直觀과 知覺이 함께 힘써 같고 닮아 好意있는 論駁에 의해 論駁되고 거침없이 물음과 답을 사용할 때, 인간의 힘이 다다를 수 있는 만큼 애쓰는 자에게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叡智와 思惟가 빛난다”고 辨證法에 대하여 기록하였을 때, 그것은 인간의 노력을 다하여 僞를 물리치고 眞을 위해 애쓴다는 Platon 의 기본자세는 보이지만 Aristoteles 와 같은 확실한 思考法則性 위에서의 推論이 없어 대조적이다. Frank 는 『제 7 書翰』 (327a)의 Platon 의 말, “인간에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言說에 의하여 보여주고 그것을 행하도록 忠告한다”는 말을 빌어 그의 辨證法이 일종의 “哲學的 忠告” (the philosophical advice)⁽⁷⁸⁾ 라고 말한 것은 재미있는 표현이다. 이에 비하면 Aristoteles 의 변증법은 그의 용어대로 “辨證法的 推論”이다. 그가 언제나 “辨證法的”이라는 形容詞를 사용한 것은 “科學的” 論證的 推論을 높이 평가하고, 辨證法的 推論을 “推論中的 하나”로 보았기 때문이다.

Platon 이 말하는 名辭, 定義, 直觀 그리고 知覺은 실제적인 意味陳述은 될 수 있어도 命題的 形式은 될 수 없다. Cornford 가 지적한 대로 “인간이 理性的이다”라고 말할 때, Platon 은 인간이라는 形相과 理性的이라는 形相이 實在 속에 “關與하다”(μετέχειν) 또는 “所有하다”(κατέχειν)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命題形式의 의식이 없었고, 단지 主語와 述語의 “混合”으로써 Idea 에의 關與만 있다. 따라서 “그(Platon)의 辨證法은 形式論理가 아니고 實在構造의 연

(77) Platon의 『제7書翰』은 오늘날까지 眞作與否로 많이 論難이 되어 있다. G. Ryle, *Plato's Progress*, 1966 (CUP)는 그것이 僞作이라고 보고, 그것은 Dion의 측근자가 쓴 것이니 Platon이 Syrakousai를 再次 訪問(BC 367)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pp. 55~59)

그렇다 하더라도 『제7書翰』은 Platon이 그의 哲學에 대한 “사람들의 誤解”를 씻고, 그의 “참된 哲學”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하였다는 점(340b)과 그것이 기록된 年代가 BC 352/1 즉, Platon이 죽기 2,3년전에 쓰인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後期思想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文書이다.

(78) E.Frank *Wissen, Wollen, Glauben*, 1955 (Artemis Verlag, Zürich), S.95.

구이고, 사실상 그것은 存在論이다. 왜냐하면 그 Idea 들이 實在이기 때문이다”⁽⁷⁹⁾ 라고 지적한 Cornford 의 기술은 타당한 것이다. 類와 種의 개념에 있어서도 Platon 은 독립된 존재를 가진 Aristoteles 的 第一實體가 아니고, 오로지 抽象自體에 머물었다. 그가 말하는 “不可分の 形相” (ἄτομον εἶδος)도 Aristoteles 的 個體는 아니었다. 그러나 Aristoteles 의 “같은 類 속에 있는 種은 不可分の 것으로서 反對物을 갖지 않는다”(τὸ ἐν ταυτῷ γένοι ὄντα ἐναντίωσιν ἔχει ἄτομα ὄντα)⁽⁸⁰⁾ 는 陳述은 種이 存在者의 形式原理이고, 완전한 規定性을 말한다. Aristoteles 의 類와 種과의 관계는 따로 떨어져 있는 普遍者와 個別者의 경우와 같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類와 普遍은 個物 속의 共通性(κοινόν)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普遍 없이 認識이 성립되지 않는다. Aristoteles 의 규정은 Platon 의 Idea 論에 맞선 그의 論理的인 특색을 뚜렷이 해주는 것이라 하겠다.⁽⁸¹⁾

Platon 의 철학은 數學的 假定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것은 Pythagoras 學派의 數學理論과 연결되어 있는데, Aristoteles 가 지적하는 대로 그의 “Idea 에의 關與”란 Pythagoras 學派의 “數의 模倣”을 借用한 것이다.⁽⁸²⁾ Platon 은 *Politeia* 6.7 권에서 數學의 지식이 Idea 의 참된 이해의 필수적 假定이라는 信念을 기술하고 있다. 數學의 연구에 의하여 인간은 감각적 知覺에서부터 마음 속에서만 존재하는 對象으로 轉換되어 나간다고 보았다.⁽⁸³⁾ 그에게 있어서 數學은 “感性的인 것과 Idea 와의 中間(μεταξύ)⁽⁸⁴⁾”에 존재한다. 이것은 Pythagoras 的 存在論을 인계한 것으로 그의 Idea 論은 數學의 방법을 빌지 않고 증명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Aristoteles 의 방법은 Platon 에 맞선다. 數學的 대상이 사고의 순수한 抽象性을 지닌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感性的 實在가 아니다. 가령 無限(τὸ ἄπειρον)의 개념이 Pythagoras-Platon 에 있어서는 實在的 數學的 성격을 띠고 있지만, Aristoteles 는 그것을 思考의 어떤 주관적 過程의 反復에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⁸⁵⁾ 이렇게 Platon 의 數學的 思考가 단순한 개념의 抽象에 환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Aristoteles 에게 남은 문제는 論理學이 有機的인 本性에 있어서 어떤 合當性을 지니는가 하는 점이다. 不知의 개념들이 推論에 의하여 서로 관련지어 나가는 “分析的 發見” 없이 Platon 이 기도한 것 처럼, “數學的 定義로 이루어진 낱개의 개념을 그것들의 言語上的 文脈에서 떼어 놓고 개별적인 名詞로 따로따로 분리시킨다면 數學的 思考의 中樞를 죽이는 것이 된다”⁽⁸⁶⁾ 는

(80) *Met.*, A₉ 1058 a19.

(79) Cornford, *op. cit.*, p. 266.

(81) N. Hartmann, Aristoteles und das Problem des Begriffs, *Kleine Schriften*, Bd II, 1957 (Walter De Gruyter & Co., Berlin) s.107.

(82) *Met.* A₉ 987b 13.

(83) *Paliteia* 527e, 537 a,d.

(84) *Met.* A₆, 987b 15~16.

(85) *Phys.* III₄, 203 a 이하.

(86) Frank, *aa.O.* S. 105~6.

것이 Aristoteles 의 견해이다.

Platon 자신은 손가락 같은 하나의 實體에는 辨證法이 아무 구실을 못하지만 大와 小 같은 數學的 개념은 辨證法과 관계되어 “存在의 觀照에로 轉換”된다고 생각하였다.⁽⁸⁷⁾ 그가 大와 小, 그리고 無限이라는 相對性에서 尺度에 이르고 그 尺度를 가지고 數를 규정지은 것은 一과 同의 理念을 통해서이다.⁽⁸⁸⁾ 여기에 그의 辨證法의 假定的 성격이 있다. 그는 그 假定을 “善의 Idea”에 두었다. 그것이 인간정신에 보장되어 있는 歸納的 前提이다. 그러나 Aristoteles 는 그 같은 一者에 묶어놓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科學의 分科는 제각기 다른 자기의 ἀρχαί 를 가지지만, 그 各分野는 論理學의 규칙에 의하여 論證的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Platon 의 “善의 Idea” 대신에 Aristoteles 는 “無假定的 原理”(ἀρχὴ ἀνυπόθετος)를 矛盾律에 두었다. “同一의 것이 同一의 것에 同一의 관계에 있어서 속하면서 동시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矛盾律이다. 이것은 “모든 원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原理이다”⁽⁸⁹⁾ 라고 Aristoteles 는 믿었다.

이제 辨證法은 Platon 에 있어서와 같이 “영원한 의미의 영원한 보존”(des ewigen Sinnes ewige Unterhaltung)이라는 생각을 벗어나 새로운 용어로 나타났다. 즉 Aristoteles 의 辨證法的 推論이 그것이다. 辨證法은 이제 推論中의 하나로 자리잡아야 했다. Aristoteles 에 이르러 辨證法은 “形相과의 離婚”⁽⁹⁰⁾ 을 선언하고 論理學(分析學)이라는 이름 아래 새 살림을 꾸려 나가야 했다.

5. 辨證法과 推論法의 關係

Aristoteles 가 그의 다른 著作에서⁽⁹¹⁾ “辨證法에 대한 著作”이라고 別稱을 붙였던 *Topica* 에서 辨證法의 세가지 有用性을 열거하였다. 즉 辨證法은 “① 知的 訓練을 위하여 ② 타인과의 討論을 위하여 그리고 ③ 哲學的 知識을 위하여”⁽⁹²⁾ 유용하다고 보았다. ① 知的 訓練을 위하여 유용하다는 것은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論議를 진행시키는 方法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② 討論에 대하여 유용하다는 말은 異質的인 의견에서 출발하여 그릇된 의견을 옳은 의견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③ 哲學的 知識에 대하여 유용하다는 말은 문제를 兩面에서 의문을 제기하여 참과 거짓을 分辨하는 것을 뜻한다. 辨證法의 이 같은 有用性을 그대로 받아드리고, 또 *Topica* 첫 머리의 “우리들 앞에 제출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들의

(87) *Politeia*, VIII 523 c~525 a.

(88) *Philebos*, 23c~26 b.

(89) *Met.* L₃, 1005b 19~23.

(90) F. Solmsen, “Dialectic without Forms” in ed. by G.E.L. Owen, *Aristotle on Dialectic—the Topics*, 1968 (O.U.P.) p. 66.

(91) *Anal. Prio.*, 46 a 30.

(92) *Topica*, 101 a 27 이하.

通念에서 推論할 수 있다”는 辨證法의 規定과 아울러 생각한다면, “모든 물음에 답하고 모든 사실에 대하여 知識을 준다”고 생각하는 自稱 저 高名한 詭辨論者들과 이 辨證論者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의문시된다. Aristoteles도 辨證法의 萬病通治를 믿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知者 그리고 가장 유명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도 “外見上의 通念에서 출발하지만 실제에는 그렇지 못하다”⁽⁹³⁾는 것이 Aristoteles의 의도이다. 그는 『形而上學』(Γ₂ 1004b 17~25)에서 “辨證論者들과 詭辨論者들은 다 함께 哲學者然한다. 왜냐하면 詭辨論은 사이비한 지혜이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詭辨術도 辨證術도 다 함께 철학과 동일한 종류의 것에 종사하되 다만 철학은 辨證法과는 그 能力(δύναμις)의 양식에 있어서 다르고, 詭辨術은 그 생활의 志向(προαίρεσις)에 있어서 다르다. 辨證法은 철학이 인식하는 것에 대한 檢證法(πειραστική)이고, 詭辨術은 사이비한 것(φανομένη)이고, 진실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Aristoteles는 이 양자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면서 자기의 哲學的方法, 즉 과학적 推理인 論證(ἀποδεικτική)을 통한 길을 제시한다.

辨證法은 이름있는 知者들에게까지 인정받는 通念에서 출발하는 命題인데, 그것은 *Topica* (104 a 21~22)에 설명하는 대로 “反對를 통하여 否定하는 일(ἐναντία κατ' ἀντίφασιν)”이다. 가령 친구들에게 善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원수들에게 善을 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通念上 생각할 수 있는 일이나, 그것은 一般論理의 換質法에 의하여 檢證되어야 할 문제이다. Aristoteles는 *De Sophisticis Elenchis* (183a 38~39)에서 辨證法과 詭辨術이 흡사하기 때문에 辨證法 혹은 檢證術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드러지는 前提에서 推論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는 일(εὑρεῖν δύναμιν τινα συλλογιστικῆν)에 있다”고 보았다. Ross가 지적하는대로 Aristoteles는 양자를 따로 구분짓기도 하고, 또 후자가 전자의 일부라고도 하고, 또 양자를 동일한 것이라고도 말했지만 두개의 차이를 두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⁹⁴⁾ 다시 말하면 Aristoteles에 있어서 辨證法은 “철학이 인식하는 것의 檢證術”이었다. 그런데 철학은 實體一般에 대한 고찰이고, 궁극적(第一의) 實體에 대한 고찰이 第一哲學이다. 철학적 추구에 있어서 辨證法은 相反되는 것들의 原理들(ἀρχαὶ τῶν ἐναντίων)에 대하여 말하는데, 철학에 비하여 변증법은 否定의 精神을 지니고 있어 缺如(στέρησις)의 면에 주목한다. 가령 運動에 대하여 靜止, 存在에 대하여 非存在, 따뜻한 것에 대하여 찬 것, 사랑에 대하여 싸움이 대립되는데,⁽⁹⁵⁾ 변증법은 후자에 주목한다. 否定的 缺如의 부분에 관심을 돌린다는 것은 Sokrates의 εἰρωνεία(빈정법)의 자세를 연상시키는 것으로⁽⁹⁶⁾ 어떤 주장에 대한 吟味檢證의 물음이다. 그 같은 변증법의 기능이 의

(93) *ibid.*, 100b25~30 참조.

(94) *Soph. Elen.* 165 b 3~4에서는 양자의 차이를 두었고, *ibid.*, 169b 25와 171b4에서는 檢證術이 辨證法의 일부라고 하였고, *ibid.*, 172a21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다고 하였다. 참조.

Aristotle's Metaphysics by W.D. Ross, 1924, 1970 (Oxford) Vol. I pp. 260~1.

(95) *Met. L₃*, 1004b 27~1005a2.

(96) *Soph. Elen.*, 183b8 참조.

문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原理를 확정시켜 주지는 않는다. 때문에 Aristoteles 는 변증법의 限界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辨證法은 물음을 제기하는 데서 성립 전개된다. 그러나 만일 辨證法이 무엇을 論證하는 일에 관심을 둔다면, 가령 모든 일에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第一의 原理들이나 개별적 대상의 原理들에 대하여 물음을 제기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⁹⁷⁾ 라고 기록하였다. Aristoteles 는 변증법의 기능을 “물음의 提起,” 즉 檢證에 국한시켰다. 그에게 있어서 변증법은 “어떤 한정된 종류의 사실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存在의 보편적인 본성에 대한 것도 아니다.”⁽⁹⁸⁾ 이 점에 있어 Platon 과 Aristoteles 의 변증법의 기능에 차이가 생겼다.

辨證法이 檢證術로서 사용한 것이 “共通의 原理들”(τὰ κοινά)이다.⁽⁹⁹⁾ 상대방에 대하여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는 答을 구하여 그 논의를 전개시키되, 상대방에 대한 反論만으로는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어떤 고유한 원리 아닌 共通으로 一般화된 原理에 의거하여 논의를 전개시켜 나갈 터전(τόπος)이 필요하다. 이 논의의 터전 또는 장소는 學問的 知識을 갖지 않는 非專門人도 특정한 대상을 다루는 專門人도 함께 설 수 있는 곳이다. 이 때 자리 또는 터전이라는 뜻의 τόπος 라는 말은 觀點이라는 말을 比喩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스어 語에는 場所를 나타내는 말에는 세가지가 있다. ἔδρα 는 특정한 座席이라는 뜻이고, χώρα 는 가장 추상적인 공간을 뜻하고, τόπος 가 그 中間에 위치하여 “사람이 설 자리”라는 뜻으로 단순한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고 자기의 觀點을 말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Aristoteles 는 τόπος 를 “討論의 構成要素(στοιχεῖον)”⁽¹⁰⁰⁾ 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τόπος 가 장소이고 觀點이라는 것은 言表된 것의 “構成要素”가 “적절한 類 속에 놓여있느냐?”⁽¹⁰¹⁾ 를 음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τόπος 는 하나의 全體를 향한 원리와 출발점(ἀρχή)이고, 많은 논의에 공통된 前提(πρότασις κοινή)이다.⁽¹⁰²⁾ 어쨌든 Topica 라는 이름의 이 Aristoteles 의 작품은 辨證法을 能力으로서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가지 τόπος 로서 제시하였다. Kapp 의 설명대로 Topica 는 “論證根據를 발견하기 위한 參考書”이다.⁽¹⁰³⁾

(97) *ibid.*, 172a 18~19.

(98) *ibid.*, 172a12~13.

(99) *ibid.*, 172a33.

(100) “나는 στοιχεῖον과 τόπος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양자는 여러 ἐνθυμήματα(省略推理)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Rhet.* II 26, 1403 a 18~19) I, During, *Aristoteles,—Darstellung u. Interpretation seines Denkens*, 1966 (Heidelberg), S.70 참조.

(101) *Topica*143 a13.

(102) W.A. Pater, “La fonction du lieu et de l'instrument,” ed. by Owen, *Aristotle on Dialectic*, p.167

(103) E. Kapp, *Der Ursprung der Logik bei den Griechen*, 1965 (Deutsche Übersetzung,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s.9

Ed. by Owen, *Aristotle on Dialectic*, pp.211~229 During은 Arist.'s use of examples in the Topics라는 論文에서 Topica에서 열거한 事例를 1. 先人の 말, 2. 自然學的인 것, 3. idea論에 관한 것, 4. 倫理的인 것, 5. 心理學에 관한 것, 6. 術語에 관한 것 등 145項을 열거하고 있다.

Topica VIII 5, 155a 37에는 附帶性에 관한 Topos (103)類에 관한 Topos (51), 特性에 관한 Topos (61), 定義에 관한 Topos(83)를 들고 있다. (計 337개)

Topica 다음에 편집된 *De Sophisticis Elenchis* 는 원래 독립된 著作이 아니고, *Topica* 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¹⁰⁴⁾ 그 마지막 부분 (184b2~3)에서 Aristoteles 는 “우리는 推論에 관해서는 우리 이전에 言及할만한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서 시도적인 탐구를 오랜 세월 애써 왔다”고 自畫自讚하는 말을 남겼는데, 그에 앞서 그는 “어떤 의론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 또 어느 점에서 듣는 자를 거짓된 推論에 의하여 기만하는가를 따져서”⁽¹⁰⁵⁾ 확실한 論理 위에서 推論해 나가는 길을 트게 한 것이라고 Aristoteles 는 自負하였다. Kapp 는 이 自畫自讚에는 一理가 있는데 당시 “論理學이라는 것으로 교수할 수 있는 體系”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Kapp 는 Aristoteles 에 이르기까지 哲學의 두개의 가지(枝)인 論理學과 心理學이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채 내려왔으나, Aristoteles 의 가장 가치있는 成就是 心理學으로부터의 “論理學의 解放”(Emanzipierung der Logik) 이라고 보았다.⁽¹⁰⁶⁾ Aristoteles 가 수립한 論理學의 중심영역은 바로 辨證法이 아닌 推論法이다.

Aristoteles 는 Sokrates 의 學問의 方法이 定義法과 歸納法이라 하였다.⁽¹⁰⁷⁾ Sokrate에 있어서 定義法 즉 보편적 정의(*ὀρίζεσθαι καθόλου*)는 문자 그대로 사물을 限界짓는 것(*ὀρος-ὀρίσασθαι*)이었다. 사물에 대하여 그 相形을 限定짓는 것이 그것을 인식하는 일이고, 언어를 통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 일이다. 그러나 사물을 規定짓는 일로써 知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知識은 必然的인 동시에 一般性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사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一般性, 즉 類에 있어서 밝혀져야 한다. Sokrates 는 이 知識의 一般性を 歸納的 證明(*ἐπακτικὸς λόγος*)에 구하였다. 개체에서 일반자를 導出하여(*ἐπί-ἄγω*) 나아가는 길을 Sokrates 는 택하였다. 이미 언급한대로 Platon 의 변증법은 Sokrates 에서 출발한다. Platon 은 처음부터 個體와 一般者를 분리하였다. 그것은 개체에서 일반자를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택한 길이 分割, 즉 따로 손에 쥐는(*δίδω-αίρω*) 일에서 얻어진다. Platon 에 있어 Idea 는 理性의 세계이고, 個物은 感性이 세계이다. 그는 *Timaios* (52d~53c) 篇에서 *χώρα*, 즉 空間을 강조하였다. *χωρίς*(分離되어)라는 副詞가 이 *χώρα* 에서 나온다. Platon 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空間의 思惟”이다. 그러나 Aristoteles 는 “論理的 思惟”에로 轉移시켰다.

(104) Aristoteles의 *Topica*는 E. Hambruch (*Logisches Regeln der platonischen Schule in der Aristotelischen Topik*, Berlin 1904)가 지적하는 대로 *Organon*의 다른 서적에 비하여 Platon의 용어가 많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Platon의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어 아마도 『分析論 前·後書』보다 앞서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Lykeion 開園 직후에 기록하였다 하더라도 그 준비는 遍歷時代부터 준비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은 初期說에 맞서 Gigon은 Aristoteles, *Topik* iii. 1~3에서 反論을 펴고 있다. Aristoteles의 나이 30세 이전의 作品이라고 한다면 40세 이상이나 年上의 學園責任者에 대하여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과, 그리고 Aristoteles가 *Topica*에서 비판하는 Xenokrates의 幸福, 思慮의 개념과 영혼의 定義가 이미 그때에 성립되었는지 의문이고, 또 그것은 “自由로운 研究氣風”이 Akademeia에 형성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ed. by Owen, *op. cit.*, pp. 236~7. *De Sophisticis Elenchis*가 *Topica*의 일부로서 그 제9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H. Bonitz, *Index Aristotelicus*, Berlin 1870, 102a49와 Zeller, *Phil. d. Gr.* II. 2, S. 73 Anm.1에서 말하고 있다.

(105) *Soph. Elen.* 182 b 8~9.

(106) Kapp. *aaO.* S. 11~15.

(107) *Met.* M4, 1078 b27.

“論理學이 가장 오랜 時代로부터 이미 보다 확실한 길을 걸었다는 것은 Aristoteles 이래 一步도 뒤걸음을 칠 필요가 없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¹⁰⁸⁾고 말한 Kant 가 『純粹理性批判』에서 論理學을 分析論 (Analytik) 과 辨證論 (Dialektik) 으로 나누어, 分析論을 확실한 학문의 기초를 밝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對象에 관하여 적극적 眞理性을 포함하느냐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이것을 形式에 即하여 그 規則에 비추어 음미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으로 보았다. 그러나 辨證論은 인간의 思惟의 오류를 시정하려는 것이지만, 그것은 “고의적 欺瞞으로 진리의 外觀을 주려는 하나의 詭辨術”이고, 이른바 “假象의 論理學”(Logik des Scheins)이라고 규정하였다.⁽¹⁰⁹⁾ 우리는 Kant 의 용어와 그 개념규정이 Aristoteles 的임을 직감한다. 그는 Aristoteles 가 경계했던대로 변증법이라는 이름의 이른바 “論理的 場所論”은 教師나 演說가들이 그럴사하게 늘어놓는 詭辨과 같은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Aristoteles 의 學問의 方法은 推論法 (συλλογισμός) 이다. 推論法이 Aristoteles 의 독창적인 것인가는 여러 모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推論은 命題에서 이루어지고, 命題는 概念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적어도 Sokrates, Platon 을 거쳐서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ristoteles 가 *Topica* 첫머리 (100a 25~26)에서 내린 推論의 定義, 즉 “推論이란 어떤 것들이 定立되면 이 前提된 것들과는 다른 것이 이 前提들을 통하여 必然的으로 이끌어지는 論議方式을 말한다”⁽¹¹⁰⁾는 定義를 보면 推論法이 “前提에서의 必然的 結論”임을 알 수 있는데, 前提에서 結論을 發見하여야 하고, 發見하기 위하여서는 分析하여야 한다. “分析하고 發見한다”는 점에서 보면 실로 推論은 Aristoteles 의 독창적인 것이라 말해야 할 것이다. Hartmann 이 지적하는대로 “論理學은 詭辨論과 맞서 싸워서 內的 一貫性的 확실성을 건립하기 위하여 思考統制의 道具로서 건립되었다.” 피변론자들의 불성실한 爭論놀이 에 맞서 성실하게 보다 확실한 思考法則性的 이해에 대한 기반을 一步一步 굳혀갔는데, Aristoteles 에 의하여 論理學은 “推論에 대한 敎說에로 향해 새로운 分析”을 시도하였다. “論理學이라는 나이 어린 이 과학이 思考聯關의 두개의 根本現象으로 推論과 判斷을 발견한 것은 이 같은 점을 관철시켰기 때문이다”라고 Hartmann 은 설명한다.⁽¹¹¹⁾ 이미 Platon 은 *Sophistes* (259 e)에서 “여러 類의 相互結合에 의하여 우리의 logos 가 생긴다”고 말하였지만, 그것은 命題와 命題 사이의 결합이 아니고, 概念과 Idea 와의 관계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Aristoteles 가 비로소 推論에 있어서 “세 名詞”(δροι τρεις)에 대한 敎說을 창조하였고, 그리고 中間概念 (μέσος ὄρος)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였다.

위에서 인용한 *Topica* (100a 25~26)의 推論의 定義는 *De Sophisticis Elenchis* (165a 1~

(108) *K.d.r.V.*, B VIII.

(109) *K.d.r.V.*, B 85~325 참조.

(110) ἔστι συλλογισμὸς λόγος ἐν ᾧ τεθέντων τινῶν ἕτερον τι τῶν κειμένων ἐξ ἀνάγκης συμβαίνει διὰ τῶν κειμένων.

(111) Hartmann, *aaO.* S. 103~4.

3)와 *Analytica Priora* (24b 19~21)에서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定義에서 우리는 ① 前提되는 것 (*πρότασις*)이 있고, ② 그 前提를 통하여 그것과는 다른 것을 必然적으로 (*ἀνάγκης*) 導出해내는 것이 推論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① 前提란 *Analytica Priora* (A₁, 24a 10~A₂, 25a 26)에 설명되어진대로 全稱, 特稱 그리고 不定稱으로 나뉘어진 名辭를 肯定, 또는 否定함으로 얻어지는 命題를 말한다. 그리고 ② 推論의 必然이란 “그렇게 定立된 것”에서는 다른 名辭가 덧붙여질 수 없다는 말이다. 그것은 “……이다”라는 單純樣相이나, “……일 수 있다”라는 許容樣相이 아니라, “반드시……이다”는 必然樣相을 뜻한다. Aristoteles에 있어서 *συλλογισμός*란 무엇을 뜻하는가? Hartmann이 설명하는 대로⁽¹¹²⁾ 그에게 있어 *συλλογισμός*란 수학적 용어인 “總計”라는 말과 같다. 語源 그대로 함께 (*σύν*) 計量함 (*λόγος*)이다. 前提에서 부터 내용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의 成就(*συμπέρασμα*)를 이루는 것이 推論인데, 이것이 前提에는 포함되지 않는 어떤 다른 것 (*ἕτερον*)으로 止揚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즉 認識聯關에 있어서 推論이란 주어진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의 성취를 말한다. 이 成就, *συμπέρασμα*를 라틴어로 *conclusio*(結論)이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判斷”이라고 보아야 한다. 前提와 結論, 정확하게는 새로운 判斷(*ἕτερον*)과의 관계는 그 力點이 推理作用에 있다. 이 새로운 判斷의 導出에서 중요한 몫을 하는 것이 中間者(*τὸ μέσον*), 즉 中間概念이다.

中間者의 개념이 Platon에게도 없지는 않았다. 그의 *Philebos* (17a)에 中間者(*τὰ μέσα*)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Idea가 感性的인 것에 關與하고, 現象이 Idea에 參與한다는 의미에서의 Platon의 후기사상의 混合(*μῆξις*)을 뜻하는 것으로 그것은 Aristoteles와 같은 논리의 구성요소가 아니었다. Platon은 Idea와 개체와의 混合에서 설명하려 하였으나, Aristoteles가 의도하는 “必然적인 論證”에는 반드시 中間者가 있어야 했다. 그는 “中間者 없이는 推論이 성립되지 않는다. (*ἄνευ μέσου συλλογισμός οὐ γίγνεται*)”⁽¹¹³⁾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령 비가 내린(前提) 후에는 언제나 大地가 濕하기(歸結) 때문에, 大地가 濕하면 비가 내렸다고 速斷하는 경우, 그것은 “徵候에 의한 論證을 歸結에 의하여 이루어 나아가는” 誤謬를 범한 것인데, 그 歸結이 “必然적인 것이 아니고”, 또 “結論을 낼 수 없는”(*ἀσυλλόγιστος*) 까닭은 中間概念에 의하여 前提와 歸結이 연결되지 않는 飛躍을 피하기 때문이다. Aristoteles에 있어서 中間者는 命題와 命題 사이를 연결시키는 매듭이다. “A가 모든 B에 述語이고, B가 어떤 C에 述語이면, 그러면 <모든 것에 述語로 된다>고 처음에 기술하였으니, 必然적으로 A는 어떤 C에 述語이다.”⁽¹¹⁴⁾ 이때 B가 中間者로서 논리적 연결에서 “必然性어로의 導出”을 제공해 준다.

(112) *aaO.* S. 117~8.

(113) *Anal. Prio.* 66 a 28.

(114) *ibid.*, 26 a 23~24.

Platon은 分割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Aristoteles는 “分割法을 사용함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推論할 수 있는가?”고 묻고, 가령 動物을 A, 可死的을 B, 不死的을 C로 나누고, 다시 人間을 D라고 했을 때, 人間이 可死인가 不死인가는 論證되어도 “人間이 可死인 動物이다”라는 推論은 必然的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分割法은 弱한 推論法(ἀσθενὴς συλλογισμός)이다”⁽¹¹⁵⁾라고 지적하고, Platon의 이 分割法을 탈피하여 필연성을 가진 “완전한 推論法”(συλλογισμός τέλειος)을 추구하였다. Aristoteles의 推論法은 세계의 名辭가 서로 關係를 가지되 “中間者가 스스로 다른 양자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¹¹⁶⁾ Platon의 混合說과 分割法의 불충분성을 깨달아 보충한 Aristoteles의 공적에 대하여 Ross는 “Platon의 形而上學的 이론을 발전시켜 形式論理學으로 轉換시킨 것은 하나의 빛나는 精神이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얼마나 豊饒하게 되었느냐의 가장 주목할만한 예증이다”⁽¹¹⁷⁾라고 기술하였다.

6. 辨證法과 推論法の 聯關性에 대한 是非

이상으로 우리는 辨證法에 대한 Platon과 Aristoteles의 立場의 차이를 다루었는데, Aristoteles의 推論法이 Platon의 辨證法の 發展이라는 주장과 이 양자는 發展이 아니라, Aristoteles가 그의 推論法の 立場에서 Platon의 辨證法の 불완전성을 비판하였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Aristoteles의 推論法에 대한 연구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던 H. Maier (1900년)는 “Platon의 辨證法の 方法을 제쳐놓고 Aristoteles의 推論法은 이해되지 않는다”⁽¹¹⁸⁾는 立場을 내세웠다. Platon은 Idea界와 感性界와의 結合을 피할 목적으로 흠어져 있는 사물을 하나의 形相으로 묶어놓는 “綜合”(συναγωγή)과 여러가지 종류에 따라 나눌 수 있는 “分割”(διαίρεσις)와의 結合方法으로 辨證法을 발견하였다. 따지고 보면 이때 綜合은 “論理的 概念形成”이고, 分割은 “概念的 分類”이다. Aristoteles는 그의 스승 Platon이 知識에 이르는 完전한 探究方法을 발견했다는 의식을 갖지는 않았지만, 爭論的 懷疑論의 위험스러운 분위기가 精神界를 위협하고 있을 때, Aristoteles가 Platon이 시도한 길을 “方法的 課題”로 받아들였다고 Maier는 보았다. 그는 “弟子가 투쟁에 있어 스승의 武器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때때로 Aristoteles는 직접 Platon의 思考過程으로 양보하고 있다. 그는 Platon과 같이 정확하고 또 意見交換 이상의 영원히 타당한 知識의 가능성을 믿고, 그렇게도 깊숙히 Platon의 Idea의 形而上學的 位置를 變革하여 知識을 모든 면에서 概念으로 규정하고 定義를 시도한다”⁽¹¹⁹⁾고 기술하였다.

(115) *ibid.*, 46 a 33 이하.

(116) *ibid.*, 25b 35 이하.

(117) *Aristotle's Prior and Posterior Analytics—A revised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by W.D. Ross, 1949, 1957 (Oxford) p. 27.*

(118) H. Maier, *Die Syllogistik des Aristoteles*, Bd. II, 1900 (Tübingen) S.56.

(119) *aaO.* S.57

이 Maier의 입장은 그후 J. Stenzel과 W. Jaeger의 지지를 받았다. Stenzel(1917년)은 Platon에서 Aristoteles의 역사적 과정은 불가피한 “思想의 進入”이라고 보았다. Stenzel은 Aristoteles의 可能態와 現實態의 관계도 Platon의 德·形相說과 分割說의 變革이라고 보아서 “그런 의미에서 Aristoteles는 Platon의 相續者(Erbe)에 해당한다”고 말하였다.⁽¹²⁰⁾ Jaeger(1923년)의 發展史的研究은 잘 알려진 것으로 Platon의 後期 對話篇이 Aristoteles의 初期作品의 斷片들과 연결되어 “계속적인 發展”을 나타낸다고 하는 점을 그는 Stenzel에 좇아서 주장하였다.⁽¹²¹⁾ 이들은 Sokrates의 對話術이 Platon의 辨證法이 되고, 이것이 다시 Aristoteles의 推論法이 되었다는 發展系譜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W.D. Ross(1949년)는 Platon의 分割法이 Aristoteles의 推論法의 근거라는 Maier의 주장에 맞서 “推論法은 서로 排他的인 種과 互斥없이 포괄하는 類를 확인하는 Platon의 分割法과는 성격상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다. Aristoteles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推論法에는 兩者擇一이 없다. 그러나 Platon의 分割法은 分類연결을 확인하는 推論法과는 다르다”⁽¹²²⁾고 기술하였다. Platon은 論理學을 기술하지 않았고, 그의 관심은 形而上學에 있었다. 그러나 Aristoteles는 分析學(論理學)의 著作에서 [形而上學的 요소가 짙은 推論法의 第一型에서까지도 形而上學的 이론 보다는 論理學的 추구에 방향을 돌렸다. 그와 아울러 Ross는 Jaeger의 發展史를 論理學的 영역에 적용한 Solmsen의 주장, 즉 『分析論 後書』가 먼저 씌여졌고, 『分析論 前書』가 나중에 씌여졌다는 이론에 대하여 그는 어디까지나 『前書』가 먼저 씌여졌고, 『後書』가 나중에 씌여졌다는 점을 피력하였다.⁽¹²³⁾

Ross의 이 주장에 대하여 F. Solmsen(1951년)은 反駁文을 발표하여 만일 Aristoteles가 그의 推論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혀 先行者를 계승하지 않았다면, 그가 완전히 독창적이 되고, 그가 『分析論 前書』에서 스스로를 發見者의 역할을 다한 사람이라고 추천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前書』의 역사적 고찰에 대한 여지가 없게 되고, Aristoteles를 Aristoteles에게서 확인하는 方法을 취하는 것으로 그것은 황당한 이야기다”⁽¹²⁴⁾라고 말하였다. Ross가 그의 著書, Aristotle의 序文에서 Aristoteles 哲學이 그의 先行者들의 作品들에서 빌어온 모자이크(mosaic)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의 Aristoteles 이해의 體系가 바뀌어졌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分析論 前·後書』만이 예외란 말인가? 고 되물었다. 그러나 Solmsen은 言語學的 精確

(120) Stenzel, *aaO.* S.54, 122에서 Stenzel은 1931년 2版 序文(X)에서 “Platon의 후기철학과 전체 論理的=推論的 傳統을 위하여 分割의 方法의 重要性은 이제 이미 自明的인 것이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121) W. Jaeger, *Aristotle — Fundamentals of the History of Development*, trans. by Robinson 1935, 1955 (Oxford) p. 15, 25.

(122) *Arist's Prior and Post. Anal.* ed. by Ross, p. 26.

(123) *ibid.* pp. 7~22 Ross는 『分析論 前·後書』의 成立年代를 Aristoteles의 30代後半, 즉 BC 350~344로 推定한다. *ibid.*, pp. 22~23.

(124) F. Solmsen. “Aristoteles' Syllogismus und Seine Platonischen Voraussetzungen” (1951), hrsg. von F-P.Hager. *Logik und Erkenntnislehre des Aristoteles*. 1972 (Darmstadt), S. 122~133.

성과 哲學的 이해가 가장 바람직하게 결부된 이 Ross의 註解書는 “오랜동안 標石으로 머물 것이다”라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E. Frank(1955년)는 Solmsen과는 달리, Ross의 의견과 같이 Platon의 辨證法의 假定的 分割은 Aristoteles의 分類의 論理學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의도한 것이 분명하다. Aristoteles는 그의 推論法의 입장에서부터 바로 그 假定的 성격 때문에 Platon의 變證법이 불완전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Platon이 그의 對話篇에서 그의 辨證法을 발전시켜 Aristoteles의 論理學의 방향을 이끌어 갔다는 것은 전혀 온당한 주장이 아니라⁽¹²⁵⁾고 기록하였다. Frank의 立論의 근거는 ① Idea를 그 위에 정초 세우는 定義란 Aristoteles에서는 오로지 名辭의 定義(nominal definition)이다. Platon의 變證법을 대치시킨 그의 論理學은 概念의 논리학, 즉 名詞의 논리학이요, 類와 種으로 분류하는 分類의 논리학이요, 個體를 類와 種 밑에 포섭하는 包攝의 논리학인 데 비하여, Platon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모든 知識을 궁극적 公理 위에 기초 세우는 그의 假定的 성격을 數學的 思考에 비추어서 증명한다. 그러나 이 수학적 定義에서 不知의 것이 간단히 知에로 還元되지는 않는다. 서로 다른 不知의 개념이 相互의 關係 속에서 결정된다고 Aristoteles는 보았다는 점이 양자의 차이이다. 그리고 ② Stenzel와 Jaeger는 Platon의 分割法이 Aristoteles에게 그렇게도 중요성을 띠고 그의 分類의 논리학에로 발전하였다고 말하지만, 실은 이 分割法은 分類法 이상의 것으로 이 양자는 서로 다르다. 分割法의 중요 목적은 Idea와 現象界의 구별과 결합에 있었다. 그것은 類를 種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Idea의 변함이 없는 상태(*στάσις*)를 知覺物의 운동의 상태(*κίνησις*)에로 관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Idea와 現象物은 전혀 떨어져 있다. 이름만이 공통될 뿐이다. Platon 자신이 *Parmenides* 133d, *Phaidros* 266 a, *Philebos* 57 b~c에서 말하는 대로 同名異義的(*δμόνομον*)이다. 또 Platon의 二分法은 그가 *Politikos* 262 c 이하에서 말하는 대로 단순한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分割法의 分枝가 A와 非A와 같은 “論理的인 矛盾”이 아니다. 따라서 偶數와 奇數, 左와 右 같은 Platon의 “對象의 矛盾”을 Aristoteles의 論理的 矛盾과는 質的 차이가 있다고 Frank는 설명하고 있다.⁽¹²⁶⁾

그러나 G. Ryle(1965년)은 다시 Platon의 최후의 10년 내지 12년과 Aristoteles의 敎育생활의 최초의 10년 내지 12년 동안 이 두 분이 Akademeia에서 辨證法을 敎育과정의 일부로 택했고, 함께 知的 訓練에 有用할 뿐 아니라 哲學的 知識에도 有用하다는 데 관심을 모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論駁術에 모여진 Aristoteles의 敎育적 관심이 誤謬에 맞서 科學的 論證에로 이끌어져간 것은 나중의 일이요 속임수 없는 論破의 이념이 科學的 論證에 先行된다”⁽¹²⁷⁾라고 결론 내림으로써 Maier-Stenzel-Jaeger-Solmsen에 이르는 發展史的 이론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이

(125) E. Frank, *aaO.*, S.108~9.

(126) *aaO.*, S.105~8.

(127) G.Ryle. “Dialectic in the Academy,” ed R. Bambrough. *op. cit.*, p. 67.

이론은 Platon의 변증법과 Aristoteles의 推論法은 異質的인 것이라는 Ross-Frank의 立論과 맞선다.

Platon의 변증법과 Aristoteles의 推論法과의 關聯與否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Platon과 Aristoteles와의 聯關關係는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 양자 사이의 차이가 바로 辨證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Ryle이 지적하는 대로 Aristoteles 哲學의 發生과 目的設定 그리고 發表까지도 그가 Platon의 學徒라는 前提에서 이해된다. Aristoteles의 發表廣場과 方向感覺은 역시 언제나 Akademeia이었다. Aristoteles는 심지어 Idea論을 一人稱 複數를 사용하여 “우리”의 信奉하는 教說이라고 말하였다.⁽¹²⁸⁾ 근자 Platon의 Akademeia에 있어서의 記述되지 않은 教說(ἄγραφα δόγματα)에 대한 연구⁽¹²⁹⁾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Aristoteles가 作業한 問題地平이 Platon의 對話篇에서 제기되었던 것보다 매우 다른 점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이때까지 확정되었던 Platon과 Aristoteles의 哲學的 位置의 비교가 다시 재검토되고 있다. Jaeger의 發展史的 연구는 획기적인 제기를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Dilthey의 傳記的 世界觀的 層階의 分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H.J. Krämer가 최근의 연구⁽¹³⁰⁾(1972년)에서 지적한대로 Aristoteles는 Platon의 *Timaios*篇을 이어받아 Timaios의 宇宙論的, 神學的 體系의 범위 안에서 第一實體(πρώτη οὐσία)와 觀照的 생활(βίος θεωρητικός)과 思惟의 思惟(νόσις νοήσεως)의 형식으로 변형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Aristoteles는 Platon 哲學의 일부를 자기의 용어로 다듬어서 다시 내놓았지만, 그의 哲學의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Platon의 경우 宇宙的 神學的 問題性이 곧 辨證法에 의하여 相續받은 ‘存在에 대한 물음’(Seinsfragen)이 되어 混合物(Amalgam)을 이루고 있지만, Aristoteles는 哲學을 理論分野와 實踐分野, 그리고 制作分野로 구분짓고, 다시 理論生活(βίος θεωρητικός)을 科學的인 것(ἐπιστημονικόν)과 計量的인 것(λογιστικόν)으로 분류하였다.⁽¹³¹⁾ Krämer의 연구대로 원래 哲學의 三分法은 Aristoteles 이전에 Akademeia 會員이었던 Xenokrates가 論理學, 倫理學, 그리고 自然學으로 나누었는데, Aristoteles는 이제 倫理學과 自然學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論理學을 다시 第一哲學과 Organon(道具學)으로 나누었고, 거기에 政治學을 첨부하였다. Krämer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즉 “Aristoteles는 分割法과 討論의 辨證法을 協同시켜서 推論法을 발견하고, 그 위에 Organon을 완성하였다. 만일 이 업적이 역시 Akademeia의 辨證法에 증속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方法的 그리고 哲學的 次元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Aristoteles 哲學의 특별한 차이는 서로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완전히 따로 설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 우리가

(128) *Met. A*, 990 a23.

(129) K. Gaiser, *Platons ungeschriebene Lehre*, 1963 (Stuttgart)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130) H.J. Krämer, “Das Verhältnis von Platon und Aristoteles in neuer Sicht, *Zeitsch. f. Philo. Forsch.* XXVI/3, S. 329~352.

(131) *Eth. Nic.*, Z₁, 1139 a 13~32.

여기서 함께 同意를 얻고자 하는 점은 Platon에게 있어 辨證法은 普遍的인 것에 관련된 學問의 최고의 방법론이었지만, Platon式으로 생각하면 Aristoteles에 와서 辨證法이 그 높은 자리에서 “道具”라는 단계에까지 下落하였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니 적어도 Aristoteles에 와서 辨證法은 哲學의 統一者로서의 위치를 斷念하고 不完全한 推論法의 자리를 감수하여야 했다.

Aristoteles는 “哲學的 논의는 論證的 推論(*συλλογισμὸς ἀποδεικτικός*)이고, 攻擊的 논의가 辨證法的 推論이다”⁽¹³²⁾ 라고 말하였는데, “通念에 의한” 辨證法的 推論의 위치 위에 “必然에 의한” 論證的 推論을 놓은 것은 Aristoteles 자신으로 보면 뚜렷한 이유가 있었는데, 辨證法이 “矛盾排除의 法則”(Gesetz vom ausgeschlossenen Widerspruch)이라는 논리적 기초론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 K. Popper의 “변증법이란 무엇인가?”⁽¹³³⁾ 라는 論文은 Aristoteles의 주장의 타당성을 追認케 한다. Popper에 의하면 正, 反, 合의 세계의 組立으로 발전해가는 변증법이 精神의 歷史, 특히 觀念과 理論의 발전이나 사회적 운동의 발전에는 꽤 잘 적용이 되지만, 그것은 科學精神 아닌 많은 暗喩를 내포하고 있다. 辨證論者는 正과 反의 “싸움”이 綜合을 “產出”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辨證論者들의 표현은 우리들의 비판적 태도를 뜻하는 것으로 비판적인 태도가 결여될 때, 正에서 反이 나오지도 않으며, 비판적인 사고는 의례히 새로운 觀念을 產出하기 마련이다. 보통 綜合은 定立과 反定立의 좋은 부분은 “維持한다”고 하지만, “이 記述이 옳게 표현된 것이라면 이 記述自體가 그릇된 것이다. 왜냐하면 綜合이 이미 있었던 觀念을 維持할 뿐 아니라, 그 경우에 發展의 前段階에는 환원시킬 수 없는 새로운 어떤 觀念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Popper는 지적하였다. 그가 지적한대로 여기에 있어 가장 중대한 오해와 혼란은 矛盾에 대한 辨證論者들의 불투명한 思考方式이다. 精神史에서는 “矛盾”이 보다 중요한 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批判” 역시 그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批判이 언제나 어떤 矛盾의 提起에서 성립되기 때문이다. 사실 “批判은 이런 어떤 矛盾을 지적하거나, 또는 批判이 反定立의 提起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理論과 正反對의 주장을 한다. 이러한 批判은 매우 중요한 衝동력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矛盾과 批判은 精神發展의 없지 못할 衝동력이지만, 우리는 두개의 矛盾된 命題를 함께 眞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辨證法이 思考의 歷史的 發展의 理論으로 되는 것은 수궁이 가지만 그것이 世界의 보편적 이론이 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主張이고,” “전혀 基礎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Popper는 인간이 問題를 解決하려고 하는 과학적인 方法은 “試行錯

(132) *Topica*, 162a 15~16.

(133) hrsg. von E. Topisch,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 1967 (Kiepenheu & Witsch) S. 262~290, Karl R. Popper, “Was ist Dialektik” (Aus: *Mind*. Bd 49, 1940, What is dialectic.).

誤의 方法”(Trial-and-error-Methode)이라고 제시한다. 과학적 방법이란 제기된 이론을 批判하고 檢證하는 일(Kritisieren und Testen)인데, 비판하고 검증한 결과, 그 이론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廢棄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즉 試行錯誤의 方法이란 본질적으로 이 “廢棄의 方法”(eine Methode der Ausscheidung)이다. 그런데 辨證法은 두 개의 矛盾命題를 인정하려고 한다. 만일 그렇게 되면 “모든 제멋대로의 命題를 허용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적어도 矛盾을 포함하는 理論은 피하여야 한다는 “決斷”이 있어야 하고, 이 決斷이 “矛盾排除의 法則”과 일치되며 그것이 곧 試行錯誤의 방법이라는 것이 Popper의 견해이다. 辨證法을 學問의 방법으로 취한 사람들에게 Popper는 좋은 批判的인 견해를 제기한 셈인데, 그것은 또 Aristoteles의 辨證法的 推論에 대한 비판과 論證的 推論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Die gegensätzliche Auffassung von Dialektik bei Platon und Aristoteles

Zoh, Jo-hann

Zusammenfassung

Die Dialektik stammt von Platon, der seine Philosophie in der Form von Dialogen beschreibt. Die Dialektik selbst definiert Platon, nach der gewöhnlichen Bedeutung des Wortes, als die Kunst, gesprächsweise in Fragen und Antworten Erkenntnisse zu entwickeln. Für die Fortsetzung des Gesprächs aber gibt es jetzt zwei Grundmöglichkeiten. Die eine Möglichkeit ist dadurch bestimmt, daß sich nun jeder von beiden bemüht, seine Auffassung von der strittigen Sache gegen den anderen durchzusetzen. Solche Art des Streitgesprächs nennt Platon Eristik. Die andere Möglichkeit besteht darin, daß beide Teilnehmer gemeinsam sich bemüht, das Wahre zu finden. Solche Art der richtigen Mitteilung im Gespräch beschreibt Plato die Dialektik als die Wissenschaft, die Rede richtig durchzuführen und die Gattung der Dinge, d. h. die Begriffe, richtig zu unterscheiden und miteinander zu verbinden.

Platon spricht von "meiner Philosophie", darunter er versteht nicht Eristik. Er redet an dieser Stelle nicht Ethik, Politik, Kosmologie, Physik, die Lehre von den Göttern, die die Philosophen vor ihm bemühten. Die neue Untersuchung Platons nimmt die Mitteilbarkeit der philosophischen Einsichten vor. Unter diesem Aspekt ist das Problem der Mitteilbarkeit gegenüber den Anderen ein untergeordnetes und kann vorgezogen werden; es führt hin zu dem eigentlichen Problem, das in erster Linie Platon selbst betrifft. Die Notwendigkeit seiner Mitteilbarkeit macht dann auch die Frage nach der Methode des Philosophierens notwendig und geben gleichzeitig einen Vorblick auf die Aufgabe der Philosophie.

Die Topik des Aristoteles führt uns auf anschauliche Weise mitten in den Streit in der Akademie um die Frage nach dem Begriff der Dialektik. Aristoteles nimmt auch die Aufgabe vor, eine Methode zu finden, die uns in den Stand setzen würden, über einen aufgestellten Satz mit Ausgangspunkt von allgemein anerkannten Ansichten Schlüsse zu ziehen. Denn dies ist die Aufgabe der Dialektik, aber auch der wissenschaftlichen Prüfung. Die Dialektik ist zwar mit der sophistischen Argumentationstechnik nahe verwandt, aber es kommt hinzu, daß der Unterredner den Satz nicht nur formal und dialektisch prüfen soll, sondern auch in bezug auf den Inhalt.

Aristotelische Philosophie ist Fortführung der von Platon aufgeworfenen Probleme, ihrer Erweiterung. Im Gegensatz von Platon betrachtet Aristoteles, jedes Urteil sei entweder eine bejahende oder eine verneinende Aussage. Eine Gegensatzaussage bringt den "widersprechenden" Gegensatz, bei dem "das Dritte ausgeschlossen ist"; konträre Gegensätze bezeichnen dagegen in einer Reihe zusammengehöriger Begriffe am weitesten voneinander Entfernte. Aus der Verknüpfung zweier Urteile mit gemeinsamem Begriff ergibt sich der Schluß, den Aristoteles "Syllogismus" nennt.

Die Entdeckung des Syllogismus bei Aristoteles entstand aus dem Zusammenwirken der Dialektik und des Erfordernisses der Disputationsdialektik, Aristoteles bildet den Syllogismus aber auf der Basis der Ausarbeitung seiner eigenen Organon auf. Wenn der Syllogismus ganz neue methodische und philosophische Dimension abgewinnt, bleibt er doch vergleichsweise partikulär. Im Zerfall der Dialektik wird man recht eigentlich die Grenzscheide sehen müssen, die Aristoteles von Platon trennt.